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36호 [루계 제25845호] 주체106(2017)년 12월 2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회주의강대국의 위상 떨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총돌격, 총매진하자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위대한 대승리를 경축하는 군민련환대회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세계를 미증유의 충격으로 뒤흔든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성공소식은 온 나라를 승리자의 크나큰 긍지와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이 빛나게 실현되였음을 온 세상에 선포한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대국의 위상을 만방에 떨친 대경사, 특대사변이며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중첩되는 만난시련을 뚫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노도쳐온 위대한 조선인민만이 이룩할수 있는 영웅신화이다.

우리 당의 슬하에서 결사관철의 선봉투사, 자력갱생의 선구자들로 자라난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은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의 존엄높은 권위를 결사옹위하고 강국건설대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강철의 담력, 불면불휴의 헌신적인 령도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강국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시며 국가핵무력완성의 거대한 성공탑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으며 당의 전략적구상과 로선을 가장 완벽하게 실천한 국방과학전사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있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위대한 대승리를 경축하는 군민련환대회가 1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대회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대회장에는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의 위대한 대승리를 안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은장군 만세!》,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은장군 만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등의 구호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과시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 대성공을 열렬히 축하한다!》 등의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으며 기발게양대들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가 나붓기고있었다.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대회장은 위대한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진두에 모시여 백승을 떨쳐가는 끝없는 민족적자긍심으로 설레이고있었다.

대회에는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주석단에 나왔다.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인 박광호동지, 박영식동지, 리수용동지, 김평해동지, 태종수동지, 오수용동지, 안정수동지, 박태성동지, 김영철동지, 로두철동지, 리용호동지, 최부일동지, 최휘동지, 박태덕동지, 김수길동지, 정경택동지, 노광철동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영대동지와 무력,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랑독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광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인민무력상인 륙군대장 박영식동지,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박철민동지가 경축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조선로동당의 정치적결단과 전략적결심에 따라 단행된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쳐나아가는 사회주의조선의 필승의 기상이 만천하에 과시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2면으로 계속

사회주의강대국의 위상 떨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총돌격, 총매진하자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위대한 대승리를 경축하는 군민련환대회 진행

1 면 에 서 계 속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식 로케트개발의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전략적지위와 위상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열화같은 마음을 담아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사회주의강대국건설의 탄탄대로를 환히 열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그들은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결사관철하고 우리 당의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을 가장 충직하게, 가장 완벽하게 실천한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합니다.》

연설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국방과학부문 전투원들처럼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전구마다에서 비약과 혁신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민족적대사변들로 충만된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대는 언제나 고도의 격동태세에서 사회주의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며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인민의 행복을 노리는 침략의 무리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무자비하게 족탕쳐버림으로써 오늘의 력사적인 승전포성을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의 축포성으로 이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있어 주체위업의 최후승리도, 청년강국의 휘황찬란한 래일도 있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심장속에 쪼아박고 모든 청년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만을 끝까지 믿고 따르며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휘황한 설계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정은장군찬가》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대회에 이어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을 경축하는 축포발사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받들어 민족만대의 승리와 번영의 활로를 열어주시고 제국주의의 침략과 핵위협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은 위대한 대승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천만심장의 환호성인양 경축의 축포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세기를 주름잡으며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위용을 안고 창공높이 솟구쳐올라 황홀한 불의 세계를 펼친 축포탄들을 바라보는 인민군장병들의 얼굴마다에는 당의 령도따라 무진막강한 군력을 총폭발시켜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고 조국의 무궁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믿음직하게 수호해갈 필승의 기상이 어려있었다.

천변만화하는 불의 화폭이 펼쳐지는 경축의 광장에서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도 눈부신 기적창조의 동음, 첨단돌파의 자랑찬 성과로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려갈 철의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그 어떤 광풍이 불어쳐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받들며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폭풍노도처럼 나아갈 천만군민의 불굴의 기상이런듯 축포탄들이 연해연방 솟구쳐오르고 충천하는 화광이 수도의 하늘가를 붉게 물들이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위대한 대승리를 경축하는 군민련환대회와 축포발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련전련승의 장엄한 뢰성을 더 높이 울려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강대국의 위상 떨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총돌격, 총매진하자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위대한 대승리를 경축하는 군민련환대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광호동지의 경축연설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의 실현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대성공소식은 지금 온 나라를 크나큰 환희와 격정으로 끓어번지게 하고 행성을 미증유의 충격으로 뒤흔들고있습니다.

미국본토전역을 마음먹은대로 타격할수 있는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화성-15》형대륙간탄도로케트무기체계의 빛나는 완성은 우리 조국의 천만년미래를 약속해준 민족사적대경사이며 당을 따라 병진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하여온 영웅적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주체106(2017)년 11월 29일, 뜻깊은 이날은 사회주의조선의 전략적지위와 위상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위대한 힘이 탄생하고 미제의 핵공갈과 위협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은 통쾌한 승전의 날로 조국청사에 찬연히 아로새겨질것입니다.

승리자의 자긍심이 하늘에 닿은 이 경축광장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열화같은 마음을 담아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어 사회주의강대국건설의 탄탄대로를 환히 열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과 9축자행발사대차를 비롯한 신형전략무기체계를 개발완성하고 단번성공시켜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구상을 가장 충직하게, 가장 완벽하게 실현하고 온 나라 인민들에게 크나큰 기쁨과 용기를 안겨준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오늘의 대승리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품에 지니시고 핵무력강화의 강행군길을 억척같이 헤쳐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불면불휴의 로고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며 장구한 기간 지속되여온 반미대결전을 기어이 끝장내실 단호한 의지를 지니시고 우리 식 로케트개발의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쳐오시였습니다.

몸소 총설계가, 결사대장, 정치위원이 되시여 삼복의 무더위도, 엄동의 강추위도 가림없이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국방과학전사들과 위험천만한 화선에 함께 계시며 천재적인 예지로 성공의 열쇠를 안겨주시고 애국의 넋과 열과 정을 다 부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초인간적인 헌신과 로고속에 《3.18혁명》과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9월 3일의 장쾌한 수소탄폭음에 이어 로케트무기체계개발의 완결단계에 확고히 도달한 가장 위력한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가 탄생하게 되였습니다.

세상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적대세력들의 포악무도한 제재압살책동속에서도 그처럼 짧은 기간에 핵강국, 로케트강국으로 솟구쳐오른 사회주의조선의 영웅신화는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정의의 한길로 나아가는 자주적인민의 힘찬 전진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중첩되는 천만시련속에서도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과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받들며 순간의 멈춤도 주저도 없이 련속적인 결사전, 공격전을 힘차게 벌려온데 대하여 커다란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있으며 승리의 상상봉에 올라선 강대국공민의 자부심을 안고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릴 부강번영의 밝은 래일을 내다보고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마음대로 침해할수 없게 되였으며 실제적인 힘으로 나라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담보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습니다.

주체조선의 핵무력강화에 질겁한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이제 또다시 고리타분한 수작을 늘어놓으면서 날강도적행위에 매여달릴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대세력들에게 조선인민과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망동에 대처하여 사상최고의 초강경대응조치단행을 신중히 고려하며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것이라고 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의 지난 9월 21일 성명을 다시 상기시키는바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오늘의 값비싼 승리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을것이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전쟁책동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계속 투쟁해나갈것입니다.

국가핵무력완성의 전략고지를 점령하고 최후승리의 찬란한 해돋이를 맞이한 오늘 우리앞에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쳐준 휘황한 설계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믿고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위하며 일심단결의 성새를 천겹만겹으로 억척같이 다져나갈것입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정신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높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적들이 발악적으로 나올수록 승리자의 배심든든히 장용한 기상을 더 높이 떨치며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전구마다에서 만리마를 탄 기세로 비약과 혁신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민족적대사변들로 충만된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할것입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국방과학부문 전투원들처럼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무비의 용감성과 투신력을 발휘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 우리 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전략자산을 억세게 틀어쥐고 나라와 인민의 안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책임적인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의 사회주의한길로 전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백전백승할것입니다.

존엄높은 주체강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위대하고 영웅적인 조선인민 만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인민무력상인 륙군대장 박영식동지의 경축연설

저는 먼저 혁명의 붉은 총창을 비껴들고 조국의 천리방선에 철벽의 진을 치고있는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대표하여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어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위대한 강국의 존엄과 밝고 창창한 억만년미래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조선로동당의 정치적결단과 전략적결심에 따라 단행된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에서의 대성공은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막강한 힘이 탄생한 전인민적대경사이며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쳐나아가는 사회주의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한 특대사변입니다.

날강도 미제가 사상처음으로 3개의 핵항공모함타격단까지 투입하여 반공화국핵전쟁연습소동에 광분하고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악명높은 핵전략자산들로 조선반도를 겹겹이 에워싸고있는 일촉즉발의 첨예한 시기에 이룩된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대성공은 명실공히 백전백승 조선로동당만이 안아올수 있는 통쾌한 대승리입니다.

4면으로 계속

사회주의강대국의 위상 떨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총돌격, 총매진하자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위대한 대승리를 경축하는 군민련환대회 진행

3 면 에 서　계 속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국력을 이 세상 그 어떤 원쑤도 감히 넘볼수 없는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웅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백두산악과 같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온갖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도전을 단호히 물리치시며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행돌파전을 앞장에서 이끄시였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의 전초선에 서슴없이 나서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불철주야의 로고와 헌신이 있어 올해에만 하여도 《3.18혁명》, 《7.4혁명》, 7.28의 기적적인 승리와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비롯한 특대사변들이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나고 이제는 침략의 원흉, 악의 본거지를 마음먹은대로 불마당질할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가 그 어마어마하고 장쾌한 뇌성을 터칠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을 기어이 완성하시여 백수십년동안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해온 미제의 침략위협을 영원히 끝장내고 조국의 안전과 강성번영을 위한 강력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만고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불세출의 전설적장군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상과 의지로 만장약하고 우리를 건드리는 침략자들을 이 세상 그 어디에 있건 가차없이 타격소멸할수 있는 완벽한 실전능력을 지닌 우리 혁명무력은 다시한번 엄숙히 선언합니다.

날강도 미제가 제놈들의 본토전역이 최정예강군의 섬멸적이며 무자비한 타격권안에 들어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망각하고 끝끝내 이 땅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위대한 령장의 손길아래 다져진 무진막강한 군력을 총폭발시켜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날려보내고야말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는 사회주의조국을 철벽으로 지키며 당의 전략적의도에 맞게 전쟁준비완성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당중앙결사옹위, 바로 여기에 우리 조국이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끝없이 위용떨치며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습니다.

우리 혁명무력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신념의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주체조선의 존엄이시고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천겹만겹의 천연요새, 무쇠방탄벽이 되여 결사보위하겠습니다.

전군에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심화시켜 로동당의 붉은 당기를 제일군기로 높이 들고 오직 당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만 총구를 내대고 곧바로 나아가는 혁명적당군의 풍모를 완벽하게 갖추어나가겠습니다.

세계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한 승리자의 긍지를 안고 빨찌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싸움준비를 완성하며 모든 장병들을 일당백의 만능싸움군들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겠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언제나 고도의 격동태세에서 사회주의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며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인민의 행복을 노리는 침략의 무리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무자비하게 족탕쳐버림으로써 오늘의 력사적인 승전포성을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의 축포성으로 이어나가겠다는것을 위대한 조선로동당에, 조국과 인민앞에 굳게 맹세합니다.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만세!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박철민동지의 경축연설

우리 500만 청년전위들은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을 결사관철하고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사회주의조선의 자주적힘, 불가항력적위력을 만방에 떨치며 만리대공으로 솟구쳐오른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의 장쾌한 뇌성은 지금 거대한 정치적지각변동을 일으키며 온 행성을 진감시키고있습니다.

주체106(2017)년 11월 29일!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의 이날과 더불어 주체조선, 영웅조선은 세계의 상상봉에 우뚝 솟아올랐으며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인 우리 청년들의 자부심은 우주에 닿았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거대한 사변을 막아보려던 미국과 온갖 적대세력들의 극단적인 제재압박책동은 풍지박산나고 우리는 병진의 덕을 보면서 자립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더 큰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제 더는 그 누구도 우리의 맑고 푸른 하늘을 흐려놓을수 없게 되였으며 우리 후대들이 고난의 행군과 같은 뼈아픈 고생과 시련을 다시는 겪지 않고 영원히 사회주의만복을 누릴수 있게 되였습니다.

만세의 환호성이 이 강산에 차넘칠수록 오늘의 특대사변을 안아오시려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의 진두에 서시여 국가핵무력완성의 최고봉을 단숨에 점령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눈물겨운 헌신과 로고가 어려와 끓어오르는 격정을 누를길 없는 우리들입니다.

정녕 《화성-15》형대륙간탄도로케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넋과 채취, 열과 정이 뜨겁게 슴배인 명심공히 위대하신 김정은동지의 로케트, 조선로동당의 전략무기입니다.

온 한해 세상을 놀랬다놓는 특대사변들을 련이어 이룩하시여 전세계에 조선의 위용을 떨치시고 마침내 제국주의침략과 핵위협의 력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전무후무한 강국건설업적을 우리 청년들은 세세년년 길이 전해갈것입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서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의 빛나는 실현으로 최후승리의 찬란한 해돋이를 펼치시여 조국의 강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확고히 담보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존엄높은 주체의 핵강국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주신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청년들의 영원한 삶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들은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천지를 뒤흔들며 《화성-15》형이 발산한 눈부신 불줄기는 활화산처럼 끓어번지는 우리 청년들의 혁명적열정을 백배해주고 대지를 박차며 날아오른 로케트는 그대로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돌진해나아갈 우리 청년들의 슬기와 용맹을 더욱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전위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신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기발을 더 높이 추켜들고 당이 정해준 침로따라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오직 앞으로만 달려나가겠습니다.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있어 주체위업의 최후승리도, 청년강국의 휘황찬란한 래일도 있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심장속에 쪼아박고 그 어떤 천지지변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끝까지 믿고 따르며 한목숨바쳐 결사옹위하겠습니다.

온갖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을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기 위한 오늘의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은 피끓는 우리 청춘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부르고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머니조국과 위대한 인민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안겨준 국방과학전사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과 용감성을 따라배워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전구들마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해나가겠습니다.

최후승리가 눈앞에 다가올수록 멸적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침략의 무리들이 감히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500만개의 핵탄두가 되여 제국주의 아성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겠습니다.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백두의 청신한 공기를 마시며 주체혁명위업을 떠메고나갈 명장들로 억세게 자라난 우리 청년대군은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 청년전위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쳐나가겠다는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병진로선 만세!

당의 국토관리정책관철에서 큰걸음을 내짚은 자랑찬 한해

황금산의 력사를 빛내여나갈 불같은 의지안고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뜨거운 조국애를 안고 황금산의 력사를 빛내여갈 신념과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며 산림복구전투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봄철나무심기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창성이깔나무, 세잎소나무, 평양단풍나무, 잣나무 등 수억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황금산의 새 력사를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의 발현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시기 산림복구전투는 단순히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의 뜻깊은 식수절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고 원아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시면서 봄철나무심기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헌신의 뜻을 깊이 심어주시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위대한 당이 이끄는 대자연개조사업의 담당자, 최대의 애국사업의 주인공, 조국의 만년재부의 창조자가 된 영예와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올해 나무심기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각지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뜻깊은 첫해에 보다 큰 성과를 안아오기 위해 조직정치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었다. 특히 지난 시기의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올해 첫시작부터 전투조직을 면밀히 한데 기초하여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내밀었다.

자강도에서는 올해에 도안의 모든 산들을 수림화하는데서 지난해보다 더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올해에 수만정보의 면적에 1억여그루의 나무를 심을 통이 큰 작전을 펼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산림복구전투와 관련한 모든 사업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대하고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도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산림복구전투에서 자기들의 애국심을 당과 조국앞에 검증받는다는 립장에서 나무들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심는데 깨끗한 량심을 바치였다. 이들은 혁신적인 안목으로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나무심기에서 높은 질적수준을 보장하였다. 결과 도에서는 올해에 계획된 나무심기과제를 넘쳐 수행하면서도 높은 사름률을 보장하였다.

황해남도에서도 산림복구전투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도안의 모든 산림복구전투장들마다에서 일군들부터가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끓이며 대중과 숨결을 같이하면서 앞채를 메고 달리였다.

일군들의 뒤를 따라 근로자들도 림지정리사업을 기술적요구대로 하고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이들은 심은 나무들의 사름률을 높이기 위하여 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도적으로 수천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올해 나무심기과제를 넘쳐 수행하였다.

평안북도에서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나무심기실적을 부쩍 높이였다.

도의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난 시기 나무심기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인 단위들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면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애국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였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지대적특성에 맞는 나무들을 심는데 모를 박았다. 이와 함께 식물성장촉진제를 리용하여 나무들의 사름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많은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무심기가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한사람같이 분발해나섬으로써 올해 나무심기과제를 넘쳐 수행하였다.

평양시와 라선시에서는 나무모준비사업을 앞세워 충분히 확보한데 기초하여 나무심기를 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하였다.

그 나날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로 심장의 더운 피를 끓이며 구뎅이파기로부터 밟아주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였다. 결과 높이 세운 나무심기목표가 점령되게 되였다.

시들에서는 비상히 앙양된 대중의 투쟁열의에 맞게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이 산판마다에 나래치게 하였다. 특히 나무들의 사름률을 지난 시기보다 훨씬 높일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였다.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산림복구전투에서 중요한것은 나무를 몇대 심었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몇대를 살렸는가 하는데 있다는 관점에서 나무심기에서 푸린입석제와 테라코템을 과학기술적으로 리용하였다. 그리고 구뎅이마다 부식토와 흙을 잘고 나무를 심은 다음 물주기를 따라세워 사름률을 결정적으로 높이였다.

남포시에서는 자기 고향의 산림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올해 수백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두었다.

함경남도에서는 해당 과학연구기관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나무의 뿌리활성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평화잡목림을 리용하여 나무모를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는 토대구를 열어놓았다.

다른 도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자기 고장의 산들을 황금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 애국의 구슬땀을 바침으로써 많은 나무들이 뿌리내리게 하였다.

본사기자 김 강 철

강하천들이 큰물에도 끄떡없게

뜻깊은 올해에 내 조국의 많은 강하천들을 큰물에도 끄떡없게 정리하는 사업에서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었다.

이 성과속에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조국의 강하천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해 헌신한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의 구슬땀이 슴배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강하천정리사업에 힘을 넣어 큰물피해를 막고 강하천주변을 보기 좋게 잘 꾸려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에서 강하천정리사업의 중요성과 함께 그 수행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당의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숭고한 애국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안아온 결실은 얼마나 자랑스러운것인가.

중강군에 가면 압록강기슭의 새 모습이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국토관리총동원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 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압록강의 제방을 더 든든히 쌓기 위한 전투를 벌리였다. 공사량이 방대한데 비해 부족한것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한몸이 그대로 제방이 되여서라도 큰물피해를 막고 성스러운 우리 혁명력사를 더 길이 전해갈 뜻깊은 사연들이 깃들어있는 이 땅을 굳건히 지켜내려는 각오밑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많은 근로자들과 굴착기, 자동차를 비롯한 륜전기재들이 동원된 속에 긴 구간에서 힘찬 전투가 벌어졌다. 결과 방대한 장석공사가 성과적으로 완공되었다.

덕천시에서는 두달 남짓한 기간에 연 수만명의 로력과 수많은 륜전기재가 동원되여 대동강에 제방을 건설하기 위한 방대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결과 수천㎥의 장석공사를 하여 살림집과 토지를 보호할수 있게 되였다.

북청군에서도 몇이 큰 전투가 벌어졌다. 군에서는 제방의 위험요소가 있는 구간들에 돌과 세멘트로 규모가 크고 든든한 방틀들을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큰물이 나도 주변농경지와 건물들을 보호할수 있게 되였다. 이와 함께 빨리 자라는 나무들을 심어 제방을 보호하면서도 강기슭의 수려한 풍치를 더욱 돋구었다.

포전들에는 생명수가 되어 흘러들고 인민들에게는 문화정서생활의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강하천들이 어찌 이 시, 군들에만 있다고 하랴.

해주시와 만경대구역, 형제산구역 그리고 홍원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들에서 강하천정리공사를 적극 내밀어 커다란 성과도 내었다.

룡천군의 경우를 놓고보자.

군에서는 많은 로력과 륜전기재들을 동원하여 어느 한 하천정리공사를 완공하기에 내밀었다. 애국의 성실한 땀을 바친 보람으로 적지 않은 면적의 농경지를 큰물로부터 보호하고 농사를 안정하게 지을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작은 개울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견고한 제방을 쌓아 모래양토장의 큰물피해를 막은 세포군살림경영소를 비롯한 도안 단위들에서 강하천정리를 실속있게 하여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지켜냈다. 이 나날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발휘한 무한한 헌신성에 의해 올해 강바닥파기와 호안림조성목표도 수행되였다.

결과 큰물과 가물피해를 막고 조국강토의 풍치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이 성과로 더 자랑스러운것이 있다. 그것은 제힘으로 국토를 잘 관리할 때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길을 더 활짝 열어나갈수 있다는 철리를 일군들과 근로자들모두가 깊이 체득한것이다.

본사기자 김 성 철

연 1천여km의 도로에 비낀 애국충정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올해에 도로건설과 관리사업에서는 뚜렷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전국각지에서 자력갱생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연 1천여km의 도로가 건설 및 기술개건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보장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여개소에서의 다리건설과 보수사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도로의 선형을 보다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이 자랑찬 성과속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국토관리총동원사상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불같은 충정의 마음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로는 나라의 얼굴이며 경제발전수준과 문명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입니다.》

새 도로를 건설하고 로반의 기술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각지에서 힘있게 벌어졌다.

동신군만 놓고보아도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군소재지와 리들을 련결하는 도로들을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 품을 아끼지 않았다.

군에서는 군도로건설대가 이 어려운 공사과제를 해제끼도록 필요한 조건보장사업을 적극 따라세워 응당한 결실을 거둘수 있게 하였다. 종전보다 훨씬 짧아진 새 로선이 생겨나니 운전사들과 군안의 인민들 누구나 좋아하고있으며 절약되는 연유 또한 적지 않다. 이 기세를 늦추지 않고 군에서는 읍과 약수지구를 련결하는 고개길옹벽공사도 다그치는 등 전반적인 도로들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홍원군에서는 국토관리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종전같으면 6개월은 실히 걸려야 한다던 어느 한 령의 굴간포장도로구간에 대한 대보수공사를 단 45일만에 결속하였다.

이를 위해 군일군들은 공사를 앞두고 이미 있던 령길우회도로의 폭을 종전보다 1.3배이상으로 확장하기 위한 예견성있는 작전을 펼치고 끝장을 볼 때까지 내밀었다.

그리하여 공사기간 륜전기재들의 운행과 인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근 20만㎥의 토량처리와 수천㎥의 옹벽공사 등 엄청난 품이 드는 평성-남포도로개건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해제끼기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위훈을 세웠다.

신의주시와 룡강군, 문천시, 은률군, 고원군, 천리마구역, 김형권군, 백암군을 비롯한 각지에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도로를 건설하고 로반의 안전성과 기술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그리하여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 인민생활을 보다 향상시킬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를 마련하였다.

다리건설 및 보수공사장에서도 자력갱생대진군의 북소리가 높이 울려퍼졌다.

장진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여러개의 콩크리트다리들을 손색없이 건설하였다.

리원, 영광, 정평군을 비롯한 함경남도안의 여러 군들에서도 이미 있던 나무다리들을 콩크리트다리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 경쟁적으로 벌어졌다.

특히 종전의 나무다리들을 대담하게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콩크리트다리들을 보란듯이 일떠세운 요덕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는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제힘으로 얼마든지 산골군을 훌륭히 전변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황해남도와 평안북도를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지역들에서 올해에 계획된 다리보수공사과제를 높은 속도와 질을 보장하며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결과 도로의 선형을 보다 원만히 보장하면서도 국토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킬수 있게 되였다.

조건이 어렵고 불리할수록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갈 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국토관리정책은 뚜렷한 실천으로 관철된다는것, 바로 이것이 뜻깊은 올해의 도로건설 및 개건전투의 나날에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다시금 새기게 된 진리이다.

본사기자 김 성 일

거리와 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당의 국토관리정책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수많은 살림집과 공공건물, 문화후생시설들을 건설 및 개건하여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을 사회주의맛이 나게 더 잘 꾸리기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에 힘을 넣어 우리 조국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나가야 합니다.》

평성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수도의 위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사업에서 또다시 큰걸음을 내짚었다.

이들은 뜨거운 향토애로 가슴끓이면서 연 수천m의 도로를 포장하고 수백동의 살림집을 현대적미감이 나게 개건보수하였다.

1만여㎥의 처리능력을 갖춘 오수정화장과 3백여개의 오물장건설도 동시에 내밀었다.

공사량이 방대하다보니 많은 품을 들여야 하였다.

하지만 더욱 문명해질 도시의 래일을 그려보면서 자체의 힘으로 완강한 전투를 벌려 보다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해놓았다.

함흥시의 전변된 모습은 또 얼마나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것인가.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받들고 떨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창조적열의와 애국의 마음에 의하여 시에는 수백세대의 과학자살림집들이 일떠섰다.

또한 중요도로연선들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수만㎡의 타일붙이기와 수십km의 도로보수공사가 진행되여 공업도시의 자랑거리가 늘어나고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더 높아지게 되었다.

화초온실들에서 키운 화려한 꽃들로 거리를 아름답게 장식하여 사람들에게 자기 고장에 대한 사랑의 정을 더욱 뜨겁게 불러일으켜준 동신군, 소충살림집의 장재칠하기와 잔디심기 등을 본보기가 될수 있게 하여 도적인 보여주기 사업을 진행한 문천시…

그뿐이 아니다.

신의주시, 해주시를 비롯한 많은 시, 군들에서 거리와 마을, 일터와 공원, 유원지들을 지방의 특성에 맞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작전하고 내밀어 좋은 결실을 거두었다.

사회주의 우리 농촌의 전변의 모습 또한 자랑스럽다.

서흥군의 현실을 보자.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든 범안리를 선경마을로 더 잘 꾸리기 위해 애국충정의 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결과 많은 공공건물들과 함께 수십동에 달하는 살림집들이 훌륭히 완공되어 농장원들이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여세대의 농촌살림집들과 체육관을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건설한 대흥단군, 대평리에 메탄가스화가 실현된 수십동의 살림집들을 새로 번듯하게 건설한 연산군을 비롯하여 순천시, 성간군, 온성군 등 각지에서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이 빛나는 현실로 꽃펴나고 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떨쳐나선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노력에 의하여 올해 인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리와 마을들의 새 모습이 도처에 펼쳐졌다.

방 영 진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는 평양시려단 전투원들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 개막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100돐을 맞으며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였다.

경기대회기간 평양, 평성, 삼지연 등지에서 축구, 빙상호케이, 속도빙상, 스키, 빙상휘거, 짧은주로속도빙상경기들이 벌어지게 된다.

개막식이 1일 빙상관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 내각부총리 전광호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체육상 김일국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번 경기대회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당의 령도밑에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전례없는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세계가 보란듯이 사회주의문명강국을 건설해가는 우리 인민과 체육인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는 의의깊은 대회로 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선수, 감독들이 경기마다에서 자기들이 련마한 육체기술적 및 전술적능력을 최대로 발휘함으로써 더 많은 새 기록을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 경기대회상징기발이 게양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대성산체육단과 평양철도국체육단사이의 남자빙상호케이경기가 있었다.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3일(일요일) 오전 청춘거리 탁구경기관에서는 탁구 1급 남, 녀 단식경기와 혼성복식경기가, 청춘거리 롱구경기관에서는 녀자롱구경기가 진행된다.

지자기폭풍에 대한 자료

2017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자기폭풍이 예견되는 날들은 다음과 같다.

4일: 활성이 중간정도인 지자기폭풍

5일: 활성이 중간정도인 지자기폭풍

6일: 활성이 약한 지자기폭풍

7일: 활성이 약한 지자기폭풍

11일과 12일, 13일에는 지자기권의 섭동작용이 있을수 있다.

불씨가 되고 불길이 되여

평양연마석공장 일군들

평양연마석공장은 기계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수십종의 연마석을 생산하는 보배공장으로 불리우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8월말까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였으며 공장의 면모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일신시키는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뚫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러일으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다른 단위들보다 조건이 좋아서 이룩된 성과가 아니였다.

여기에는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는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창조적으로 해나가는 강영일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의 창조적인 일본새가 깃들어있다.

지난해까지만도 공장에서는 여러가지 조건으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지 못하고있었다. 이 문제를 놓고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우에서 보장해주기전에는 별수 없는 일처럼 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있었다.

공장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심을 지니고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이라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이들은 대오의 기수가 되여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면서 대중을 불러일으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였다.

당조직에서는 모든 종업원들이 공장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두뇌전, 기술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부족되는 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해나가도록 떠밀어주었다.

날이 갈수록 그 위력은 크게 나타났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의하여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울려퍼지고 높은 실적이 련이어 기록되였다. 그럴수록 공장일군들은 종업원들의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그들의 정신력을 더욱 폭발시켜나갔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 할수 없는 일처럼 여기던 청사내부개건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해제끼었다.

당시 부족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닌 조건에서 형편이 좋아진 다음 공사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일군들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앞선 단위들의 건설경험을 배우고 자체로 기능공들을 양성하여 본때있게 공사를 내밀었다. 결과 석달만에 청사의 내부가 완전히 일신되였다. 자기 힘에 대한 믿음과 완강한 공격정신은 이렇듯 좋은 성과를 안아왔던것이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질좋은 연마석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최 영 조

꾸바혁명무력절 61돐에 즈음하여

꾸바대사관 무관 연회 마련

꾸바혁명무력절 61돐에 즈음하여 마르첼리노 로드리게스 곤쌀레스 주조 꾸바공화국대사관 무관이 1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인민무력성 부상 륙군상장 김형룡동지,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무관들이 초대되였다.

헤쑤스 데 로스 앙헬레스 아이세 쏘똘롱고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로씨야국가회의 정당련합대표단 귀국

로씨야국가회의 로조친선의원단 단장인 까즈베크 따이싸에브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국가회의 정당련합대표단이 1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평양산원 3산과 의료일군들

사랑의 요람을 지켜가는 길에

지난 11월 중순, 평양산원 3산과 입원실들의 고요한 정적을 깨치며 오돌찬 고고성이 울려퍼졌다. 아이를 받은 최명호과장과 리명진의사는 물론 이 시각을 기다리며 가슴조이던 과의료일군들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이 땅의 어머니들을 위한 사랑의 집에서 례사롭게만 여겨오던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날만은 평범하게 들려오지 않아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간이 사랑을 떠나서는 존재할수 없는것처럼 보건은 정성을 떠나서 존재할수 없습니다.》

심한 경련으로 인한 의식장애, 위험한계를 넘어선 혈압…

이것이 락랑구역에서 살고있는 림일금동무가 입원할 당시의 병상태였다.

시급히 손을 쓰지 않으면 환자는 물론 이제 태어날 아기한테도 치명적인 후과를 미칠수 있는 긴급한 정황이였다.

그때일을 돌이켜보며 환자를 담당했던 리명진의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 정황속에서 의사의 결심체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의학적선택으로만 된다면 오늘과 같은 성과는 이룩되지 못했을것입니다.》

이 말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는 림일금동무를 만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예로부터 의술은 인술이라고 하였다. 모진 진통과 혼미해지는 의식속에서도 림일금동무는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무수한 눈길들을 똑똑히 볼수 있었다고 한다.

《일금동무, 아들이 아니면 어쩐다?》라고 하면서 웃음을 짓던 과장이며 한잠 푹 자고나면 거뜬해질거라고 하면서 손을 꼭 잡아주던 리명진의사를 비롯한 의료일군들의 정한 모습들은 그대로 어려운 수술부담을 이겨낼수 있는 힘과 용기로 되었다.

언제나 침상곁을 떠나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늘 보살펴주는 극진한 손길들과 때로는 이름으로, 고열로 모대길 때 침식을 미루어가며 돌봐주던 그 뜨거운 마음들이 사랑의 요람을 지켜가고있음을 림일금동무는 길지 않은 입원생활속에서 심장깊이 깨달았다.

진정 환자를 자기의 친혈육처럼 대할 때, 약물보다 먼저 사랑과 정을 부어줄 때 넘지 못할 의학적한계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새겨안게 한 이야기였다. 부피두터운 림일금동무의 병력서의 갈피마다에는 환자를 위해 새겨간 이곳 의료일군들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그대로 깃들어있었다.

오늘 평양산원 3산과는 인간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높은 의술을 소유한 실력가집단, 산과분야에서 관록있는 집단으로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환자들에 대한 지극한 정성으로 의학과학기술연구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는 이들의 높은 실력과 끝없는 헌신은 인민들의 진정이 넘친 《우리 의사선생님》이라는 부름속에 모두 비껴있다.

오늘도 이곳 의료일군들은 두팔을 벌려 온 나라 녀성들을 반겨맞고있는 사랑의 요람인 평양산원을 지켜 헌신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성 민

대세에 역행하는 반역무리의 발악적책동

최근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보수적폐청산기운이 날로 고조되는 속에 파쑈독재와 반인민적악정,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리명박, 박근혜패거리들의 더러운 죄상이 더욱 낱낱이 드러나고있다. 박근혜《정권》시기에 감행된 괴뢰정보원의 특수활동비제공사건,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청와대문건조작사건 등은 물론 리명박패거리들이 저지른 괴뢰군싸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개입사건과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사건, 《다스》회사비밀자금사건을 비롯한 각종 범죄사건들이 련이어 폭로되여 보수패당을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적폐청산의 칼날이 박근혜와 그 잔당들은 물론 리명박역도에게까지 미치게 되자 바빠맞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패거리들은 《정치보복》이니, 《광란의 칼춤》이니 하고 겁고들면서 발악적으로 저항해나서고있다. 한편 로무현《정부》의 부정부패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것을 요구는가 하면 죽은 권력도 저항할 능력은 있다고 줴쳐대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불법사용의혹이라는것을 들고나와 저들에게로 쏠린 초점을 흐려놓으려고 획책하고있다. 이러한 속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를 비롯한 괴뢰보수언론들도 《보복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느니, 《법집행의 범위를 넘어서고있다.》느니 하는 여론들을 내돌리면서 보수패거리들의 란동을 부추기고있다. 괴뢰보수패당의 발악적도전으로 하여 남조선정국은 혼란의 시궁창에 빠져들고있으며 적폐청산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커다란 장애에 부닥치고있다.

적폐청산을 가로막으려는 괴뢰보수패당의 책동은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 초불민심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적폐청산은 남조선인민들의 요구이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은 보수《정권》에 파멸을 선고한 초불투쟁의 계속이다. 초불투쟁은 단순히 《정권》교체만을 위한것이 아니였다.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층 인민들은 낡고 부패한 보수《정권》의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고 사회적정의와 민중의 참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대중적으로 초불을 들고 투쟁의 광장들에 떨쳐나섰다.

남조선언론들은 《초불은 단지 박근혜, 최순실을 규탄하기 위해 들었던것이 아니다. 초불의 목적은 바로 적폐청산이다.》라고 하면서 적폐청산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초불민심의 요구를 반드시 실현할것을 주장하고있다.

이러한 속에 남조선인민들은 민중을 개, 돼지로 여기면서 온갖 불법무법행위를 일삼은 박근혜패당뿐아니라 진보민주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면서 비렬한 모략책동으로 보수《정권》을 연장하고 권력형부정부패를 일삼은 리명박역도의 죄악도 낱낱이 파헤쳐 무자비한 징벌을 가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웨치고있다.

얼마전 《MB잡자 특공대》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 단체, 인사들은 《리명박, 박근혜적폐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있다. 이미 정치적사망선고를 받은 〈자유한국당〉이 사회개혁을 가로막고있다.》고 울분을 터치면서 적폐덩어리인 《자유한국당》은 리명박, 박근혜와 함께 력사의 뒤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월》호참사유가족단체와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과 인민들은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대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적폐청산방해책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초불투쟁의 정신을 살려 적폐의 주범인 보수패거리들을 쓸어버리고 사회개혁을 실현할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괴뢰보수패당이 민심의 강렬한 지향과 요구에 한사코 도전하면서 적폐청산에 필사적으로 반발해나서는것은 인민들을 독재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기면서 그들을 깔보고 마구 짓밟던 반역적체질의 발로로서 죽어도 달라질수 없는 역적무리의 반인민적본성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보수적폐청산은 초불민심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막을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다. 한줌도 못되는 보수역적패거리들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적폐청산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힘찬 투쟁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적폐청산투쟁에 도전해나서는 괴뢰보수패당의 망동은 보수《정권》을 부활시키고 력사의 시계바늘을 과거의 독재시대에로 되돌려세우려는 흉악한 속심의 발로이다.

지금 괴뢰보수패거리들은 각계의 적폐청산투쟁이 고조되자 그것을 구실로 《보수재건》, 《보수의 재집결》에 대해 고아대며 보수통합에 광분하고있다.

얼마전 그 무슨 《보수대통합》의 간판을 내걸고 《바른정당》탈당파들을 복당시킨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그에 이어 《늘푸른한국당》, 《대한애국당》, 《새누리당》을 비롯하여 군소보수정당들까지 규합하여 세력을 확대하고 적폐청산에 한사코 맞서려고 발악하고있다.

보수세력의 통합놀음은 적폐청산을 가로막는 동시에 재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야합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다음해 6월에 있게 될 지방자치제선거를 보수부활, 보수재집권의 중요한 계기로 삼으면서 벌써부터 보수통합에 열을 올리고있다. 사방으로 흩어져버린 보수패거리들을 자기쪽으로 긁어모아 보수세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지지기반을 확대하여 다음해의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잃어버린 지위를 되찾고 그것을 《대통령》선거까지 이어나가 권력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려는것이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의 계책이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패당이 그 무슨 《당의 근본적혁신》에 대해 떠들며 박근혜역도를 당에서 내쫓는 연극을 논것도 저들의 부정적영상을 덜어버리고 등돌린 민심을 끄드저 땅바닥에 나딩구는 지지률을 끌어올리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보수《정권》의 부활을 노린 괴뢰보수패당의 재건, 통합놀음은 새 정치, 새 생활을 지향하는 민심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이 그 무슨 《깨끗한 보수》니, 《혁신》이니 하고 너스레를 떨고있지만 이자들은 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고있는 악마들이며 파쑈독재에 명줄을 걸고있는 극악한 살인마들이다. 보수패거리들이 적폐청산에 대해 《정치보복》으로 헐뜯으면서 《정권》이 바뀌면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치사》라고 피대를 돋구고있는것만 놓고보아도 이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장차 어떤 참사가 빚어질지 가히 짐작할수 있다.

보수《정권》의 부활은 곧 과거의 피비린 파쑈독재의 부활이며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불행과 재난으로 될것이다.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은 이것을 절단코 허용할수 없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보수패당의 발악적망동에 각성을 높이고 적폐청산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살길을 열려고 어리석게 날뛰는 력사의 반동들을 단호히 쓸어버릴 의지에 넘쳐있다.

은 정 철

치욕의 주종관계가 낳은 비참한 현실

얼마전 미국과 괴뢰들사이에 《주둔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회의라는것이 벌어졌다. 이 회의를 통해 남조선에서 주인행세를 하며 날강도적인 전횡을 부리는 미국의 흉악한 몰골과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으며 상전에게 아부굴종하는 괴뢰들의 사대매국적정체가 다시금 낱낱이 드러났다.

미국과 괴뢰들의 이번 《주둔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회의에서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감정을 눅잦힐 목적밑에 합의내용공개와 미군범죄피해자보상, 미군기지오염제거문제 등이 론의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지금껏 자신들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미제침략군기지들의 정보공개와 미군범죄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상, 미군기지들의 오염제거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회의에서 미국은 합의내용공개문제와 관련하여 《군사기밀》이 아닌 정보들만 공개하자는 식으로 합의내용공개를 사실상 거부하였다. 미군범죄피해보상의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는 미군범죄에 대한 《예방노력》이니, 《쌍방간의 협력강화》니 하는 허튼 나발을 불어대며 묵살해버렸다. 미제침략군기지의 환경오염처리에 드는 비용을 초상 부담할데 대한 문제도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나가자고 하면서 외면해버렸다.

결국 괴뢰들은 상전으로부터 하대와 무시만 당하고 얻은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들은 이 회의를 계기로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있다는 쓸개빠진 수작을 늘어놓았다. 그야말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오만과 횡포, 상전앞에서 아무말도 못하고 쩔쩔매는 괴뢰들의 친미굴종행위에 대한 생동한 고발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미국과 괴뢰들의 《주둔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회의는 지배와 예속, 강박과 굴종으로 일관된 치욕스러운 주종관계의 축도이다.

폭로된바와 같이 일명 남조선미국《행정협정》으로도 불리우는 《주둔군지위협정》은 세계최악의 현대판노예문서이다. 미제침략군무리들은 저들에게 치외법권적특권을 제공하고있는 《행정협정》을 등대고 남조선에서 아무 꺼리낌도 없이 살인, 강도, 강간 등 온갖 치떨리는 범죄행위를 끊임없이 일삼고있다.

하지만 미국은 남조선에서 미군범죄의 온상으로 되고있는 이 협정을 폐지할 대신 오히려 《주둔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회의라는것을 통해 해마다 저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수정보충해왔다. 이번에 미국이 합의내용공개와 미군범죄피해자보상, 미군기지오염제거문제 등에서 괴뢰들의 청탁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과렴치하게 저들의 강도적요구만 실현한것은 그 연장이다.

현실은 미국이 괴뢰들을 저들의 식민지하수인, 누거리전쟁대포밥으로 여기면서 남조선인민들이야 재난을 당하든 목숨을 잃든 상관없이 오로지 저들의 리익만 추구하면서 북침야망실현에 광분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세상에는 남조선과 같이 침략자, 강점자들이 범죄허가증이나 다름없는 불평등한 협정을 등대고 별의별 반인륜적악행들을 합법적으로, 제 마음대로 감행하고있는 살인과 테로, 범죄의 란무장은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창피와 수치를 느낄줄 알아야 한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상전앞에서 할 소리도 못하고 눈치놀음만 하며 설설기는 괴뢰들의 망신스러운 꼴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더욱 부추기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수치스러운 주종관계는 끝장나야 한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희생물이 된 남조선의 무수한 령혼들은 오늘도 잠들지 못하고 복수를 부르짖고있으며 협정폐기를 절규하는 민심은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자주를 지향하는 오늘의 시대에 남조선인민들이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군사적강점의 멍에를 쓰고 온갖 굴욕과 희생을 강요당하고있는것은 민족적수치이고 오욕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상전과의 《동맹》에 명줄을 걸고 미국의 영구강점을 애걸하며 동족대결에 광분할것이 아니라 반미자주를 요구하는 초불민심을 똑똑히 새겨들어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을 비롯한 매국협정들을 철폐하고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심 철 영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

유엔공업개발기구총회 제17차회의에서 연설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이 11월 28일 오스트리아의 윈에서 진행된 유엔공업개발기구총회 제17차회의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오늘 세계에는 의연히 경제적불평등과 실업, 빈궁이 적지 않게 남아있으며 이것은 《세계화》과정이 심화될수록 그 변두리로 밀려나고있는 발전도상나라들속에서 매우 위험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고 말하였다.

일부 특정한 국가들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주권과 발전권을 침해하고 제재와 압력으로 그 나라들의 사회경제발전을 가로막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반도의 현정세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적대세력들은 주권국가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는 무시하고 유엔안보리사회의 《제재결의》리행을 구실로 민수공업과 인민생활분야에까지 가장 가혹하고 반인류적인 제재를 가하고있다.

이렇게 개별적나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있는 무차별적인 제재와 경제봉쇄는 더이상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제반 사실은 유엔공업개발기구가 발전도상나라들의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공업발전을 담보할수 있는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것과 함께 성원국들의 개발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실제적인 동반자로 될것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단장은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온갖 도전들을 과감히 이겨내면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해치려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전례없는 정치군사적압력과 제재속에서도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자강력제일주의기치밑에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려명거리건설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비롯하여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현대적인 경공업대상들을 수많이 일떠세운데 대해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인민들에게 가장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공화국이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리념에 맞게 유엔공업개발기구와 모든 기구성원국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며 인류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국제적노력에 적극 합류해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트럼프에게 차례질것은 파멸의 운명뿐

남조선신문이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족일보》가 11월 27일 《북침핵전쟁책동에 광분하는 트럼프에게 차례질것은 파멸의 운명뿐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미국이 지난 11월 중순 《떠다니는 군사침략기지》로 불리우는 미핵항공모함타격단을 무려 3개나 동원하여 북을 겨냥한 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았다고 규탄하였다.

미국이 12월초 스텔스전투기들인 《F-22랩터》와 《F-35A》를 비롯하여 230여대의 항공기와 해병대, 해군 등 1만 2 000여명의 병력이 동원되는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을 벌리려 하는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또다시 핵전쟁의 구름이 감돌고있다고 사설은 지적하였다.

사설은 트럼프가 북을 《테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한것을 비롯하여 군사, 경제, 외교분야의 압박수단들을 총동원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변나라들도 《또 다른 위협행동에 가깝다.》, 《상황을 극한으로 끌고가는것은 지역적, 세계적수준의 큰 재앙을 초래할수 있다.》, 《미국의 지나친 제재로 조선반도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있다.》고 비난하고있는데 대해 사설은 밝혔다.

사설은 미전략군사령관이 트럼프의 불법적인 핵공격명령을 거부할 립장을 밝히는 등 미국에서 전쟁미치광이의 핵선제권 행사권한에 대한 론의가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는것은 핵전쟁가능성이 적지 않다는것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탄핵위기에 처한 트럼프가 유엔총회에서 《완전파괴》라는 망발로 사실상 북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후 조선반도에 미전략자산들이 순환배치되고 북침핵전쟁책동이 련속적으로 감행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으로 볼수 없다고 사설은 지적하였다.

사실은 트럼프를 《21세기 히틀러》, 《전쟁미치광이》라고 단죄하는 비난들이 내외에 널리 퍼지는 리유도 다른데 있지 않다고 하면서 갈수록 높아지는 핵전쟁가능성을 반대하여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인류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떨쳐나 반트럼프, 반미, 반전투쟁을 세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인류력사가 보여주듯이 침략전쟁세력은 반드시 자기가 지질러놓은 전쟁의 불길속에서 타죽기마련이라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남조선신문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책동을 폭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아시아경제》가 11월 24일 일본정부가 영국과 새형의 공중대공중미싸일개발을 추진하면서 군국주의부활을 꾀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신문은 일본정부가 《북의 위협》을 떠들며 군비를 확장하는 한편 패망후 금지되였던 무기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이 12월에 영국에서 열리는 장관급회담에서 미싸일개발을 위한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게 된다고 신문은 전하였다.

신문은 일본이 개발된 미싸일을 스텔스전투기 《F-35》에 탑재하는 등 현재 항공《자위대》가 사용하고있는 미국제미싸일들과 교체하려 하고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영국군과의 공동훈련도 확대하려 하고있는데 이것은 영국을 끌어들여 북과 중국을 억제해보겠다는것이라고 신문은 폭로하였다.

더우기 아베정권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것을 추진하고있으며 이러한 개헌이 성사되는 경우 《자위대》는 다른 나라에 파병할수 있는 군대행세를 하게 된다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신문은 일본정부의 군사장비수입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있는데 올해에는 그와 관련한 예산이 5년전보다 무려 2.6배나 늘어났으며 여기에서 특히 미국산 군사장비예산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일본을 행각하면서 아베에게 미국제무기구입을 늘이라고 요구한것만큼 앞으로 그것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결국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방위비인상, 무기공동개발 및 수출, 《자위대》의 진화가 다 그쳐지고있는셈이라고 신문은 전하였다.

《세월》호피해자유해발견사실을 숨긴자들의 처벌을 요구

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의 4.16가족협의회와 4.16련대가 11월 23일 괴뢰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세월》호피해자유해발견사실을 숨긴자들을 처벌할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지난 17일 《세월》호선체의 진흙을 씻어내는 과정에 유골 한점이 발견되였으나 해양수산부의 관계자가 사실을 숨기고 희생자가족들과 선체조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 사실을 은폐한 관계자는 박근혜《정권》시기의 《세월》호인양지연과 선체훼손행위 등에 책임이 있는자라고 성명은 까밝혔다.

성명은 4.16가족협의회와 4.16련대가 당국에 《세월》호조사방해와 진실은폐, 인양지연 등에 관련된자들을 모두 조사하고 해임시킬것을 요구하였지만 아직도 관철되지 않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성명은 해양수산부당국이 유해발견사실을 숨긴 사건에 관련된자들을 조사하고 《세월》호희생자가족들과 국민들에게 공식사죄하며 재발방지와 희생자들의 유해를 마저 찾기 위한 대책을 세울것을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꾸바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꾸바는 자연경치가 아름다운 나라로 알려져있다. 얼마나 아름다왔던지 1492년에 꾸바를 발견한 콜럼부스는 자기 일기에 이렇게 썼다.

《인간의 눈이 일찌기 보지 못한 아름다운 땅이다.》

하지만 혁명이 승리하기 전까지 그 아름다운 땅의 주인은 꾸바인민이 아니라 서방식민주의자들이였다.

강한 군력이 없으면 자기 땅을 지켜낼수 없다는것은 꾸바의 력사가 실증해준다.

지금으로부터 61년전인 1956년 12월 2일 꾸바혁명가들을 태운 《그란마》호는 오리엔떼주에 상륙하였다. 상륙작전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희생되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7자루의 총을 가지고 산으로 들어갔다. 이 7자루의 총은 꾸바혁명무력의 기초로 되였다.

꾸바혁명가들은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지도밑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하고 무장투쟁을 확대강화하였으며 1959년 1월 1일에 드디여 친미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쟁취하였다.

그때부터 아름다운 꾸바땅은 이 나라 인민의 소유로 되였다.

꾸바혁명무력은 그 땅을 지켜선 믿음직한 보위자이다.

미국은 1961년 4월에 꾸바공군표식을 한 공중비적들을 이 나라에 침입시켜 여러곳을 폭격하고 고용병들을 플라야히론으로 들이밀었다. 꾸바혁명무력은 전체 인민과 합심하여 미국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물리치고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미제의 악랄한 반꾸바고립압살책동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꾸바정부와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군사력강화에 큰 힘을 넣고있다. 전투훈련을 강화하고있으며 군사전법들을 완성하고 무장장비의 현대화수준을 높이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여러가지 군사훈련들이 진행되였다. 훈련들의 목적은 미국의 있을수 있는 침략에 대처하기 위한데 있다.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고 방위력을 부단히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임의의 시각에도 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 조국과 사회주의를 지킬수 있도록 항시적인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있다. 어제도 그러했지만 오늘도 꾸바에서 군대는 사회주의의 군사적기초로, 나라의 안전과 평화보장의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있다.

꾸바혁명을 말살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트럼프가 꾸바혁명무력소유의 기업체들과 상업거래를 하는것을 금지시키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대꾸바정책을 제시하였다. 제재의 화살을 꾸바혁명무력에 집중시켜 이 나라 군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해보려는것이다.

꾸바당과 정부는 미제의 반꾸바책동에 대처하여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더욱 각성시키는 한편 군대와 인민의 단합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오늘은 꾸바혁명무력절 61돐이 되는 날이다. 꾸바군대와 인민은 혁명무력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이 날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본사기자 손 소 연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사회건설을 위한 노력

오늘 라오스인민은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식민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라오스인민은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려 1945년 10월에 독립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지배의 검은 마수는 끊기지 않고 계속되였다. 오래전부터 라오스에 대한 침략야망을 품어온 미제는 친미세력들을 사촉하여 련립정부를 반대하는 내란을 일으키고 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하지만 반미항쟁을 줄기차게 벌려온 라오스인민혁명당과 애국적인민들은 1975년 5월 무장봉기를 일으켜 미제를 몰아내고 마침내 12월 2일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창건하였다.

공화국의 창건과 더불어 라오스인민은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 나라 인민은 라오스인민혁명당의 령도밑에 사회적진보와 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라오스에서는 당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다각적인 경제발전에 힘을 넣고있다. 하여 올해에도 나라의 경제가 6.83% 장성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특히 농업과 봉사업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될것이 예견되고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력량이 많지 못한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2020년까지 과학자력량을 현재의 10배이상으로 늘이며 과학자양성사업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까지 락후한 나라들의 대렬에서 벗어나게 하자는것이 이 나라의 목표이다.

지난해 이 나라에서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제10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제8차 5개년사회경제발전계획(2016년-2020년)과 10개년사회경제발전전략(2016년-2025년)이 토의되였다.

이 나라에서는 제8차 5개년사회경제발전계획기간에 년간 흰쌀생산량을 약 500만t으로 늘일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수력발전소건설과 관광업발전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라오스는 평화, 독립, 친선, 협조의 대외정책을 시종일관 견지하면서 아시아나라들과의 련계를 밀접히 하며 국제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라 명 성

수리아문제를 통해 본 미국의 침략적정체

최근 유엔안보리사회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제기한 수리아에서의 《화학무기공격》사건과 관련한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있었다.

결의안은 로씨야가 거부권을 행사한것으로 하여 기각되였다.

거기에는 수리아에서의 《화학무기공격》사건들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조사기구의 활동기한을 1년간 연장할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서술되어있었다.

알려진바와 같이 2015년 8월에 미국과 서방은 수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공격》사건의 책임을 수리아와 로씨야에 넘겨씌워보려고 그 무슨 《배후조종자》라는것을 밝혀낸다는 미명하에 유엔과 화학무기금지기구 성원들이 망라된 합동조사기구라는것을 내왔다.

그러나 이 기구는 공정성과 객관성에 기초한 조사를 벌린것이 아니라 미국과 서방의 눈치를 보며 이중기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말에는 명백한 증거도 없이 수리아정부군이 적어도 세차례의 화학무기공격을 하였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내놓았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때를 만난듯이 법석 떠들어대면서 수리아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하였다, 그 책임은 로씨야측에도 있다고 피대를 돋구었다.

올해 4월에는 미군이 수리아정부군의 《화학무기사용》에 대한 보복조치를 운운하며 수리아의 공군기지를 향해 약 60기의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을 퍼붓는 불법무도한 침략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리고는 그것이 마치도 《인권옹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도 되는듯이 여론을 기만해나섰다.

지어 미국은 로씨야가 무고한 녀성들과 어린이들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하는것을 용인하였다, 화학무기를 사용한자들의 편을 또다시 들고있다, 로씨야가 이른바 정치적고려를 구실로 수리아국민들을 속이고있다고 맹렬한 비난전을 개시하였다.

수리아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는 4월초 이들리브도에서 있은 화학무기사건의 배후에는 미국과 서방의 정보기관들이 있으며 그 사건은 자기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구실이였다고 까밝히면서 미국과 서방이 수리아정부를 《악마화》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데 대해 폭로단죄하였다.

만일 유엔안보리사회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게 된다면 순항미싸일발사도 서슴지 않는 트럼프패거리들에게 수리아를 통채로 내맡기는 격이 된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였다.

로씨야와 볼리비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유엔안보리사회에서 미국이 조작한 결의안을 완강히 반대해나섰다.

그러나 미국은 수리아정부가 《화학무기공격》을 또 준비하고있다는 여론을 내돌리는 한편 결의안내용을 《화학무기공격》사건과 관련한 제재대신 합동조사기구의 활동기한을 연장할데 대한것으로 바꾸어 어떻게 해서나 사건의 책임을 수리아정부에 전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지난 11월 16일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저들이 고안해낸 결의안이 10번째로 반대에 부딪치자 미국은 집요하게도 그 다음날에 또다시 일본의 명의로 결의안을 제기하였지만 종당에는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로씨야측은 수리아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하였다는 미국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료들에 기초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과 서방이 이러한 의제를 놓고 새롭게 떠드는 목적이 수리아정부에 최대로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자는데 있다고 까밝혔다.

로씨야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사실을 날조하는 미국과 서방의 철면피성이 도수를 넘고있다고 격분을 표시하면서 이와는 관계가 없지만 국제문제에서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을 삼가해야 하는가를 미국에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유엔을 도용하여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해보려는 미국의 끈질긴 모략책동은 세계평화의 파괴자, 국가테로왕초로서의 미국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보이고있다.

공정한 여론은 국제사회가 유엔무대에서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과 군사적간섭을 합법화하려는 미국의 불법무도한 독단과 전횡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전투기와 미군초계기 흑해상공에서 조우

최근 미국의 《P-8 포세이돈》해상초계기가 흑해상공을 돌아치던중 로씨야의 《Cy-30》전투기와 조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로씨야전투기는 미군초계기로부터 불과 50ft의 거리까지 접근하여 좌우로 기동하면서 재연소장치를 가동시킨 후 미군초계기앞으로 비행하였다.

미국방성 대변인은 로씨야전투기의 이러한 비행이 전투기배후에 생기는 세찬 기류에 미군비행기가 휘말려들어 큰 사고를 낼수 있다고 아부재기를 치며 불만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관측통들은 이번 사건이 미국과 나토가 흑해수역에 무력을 망탕 끌어들이며 분별없는 도발행위를 감행하고있는데 대해 결코 방관시하지 않을것이라는 로씨야의 립장을 보여준것으로 된다고 평하고있다.

이스라엘의 발광적인 미싸일방위체계전개책동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11월 27일 해상배비형 《아이언 돔》미싸일방위체계가 정식 실전배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군은 이미 2~3일간의 군사연습과정에 《타미르》요격미싸일을 발사하는 등 부산스러운 움직임을 보였다. 유태복고주의자들의 미싸일방위체계전개책동은 지역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는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71190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